

# 강진군, 도시가스 설치비 용자지원 주민 부담 던다

연 1.5% 이자율 주택·복지시설 대상 에너지 비용 절감 복지 향상 목표 관내 도시가스 공급지역 거주 주민 가구 500만원·시설 1000만원 한도

강진군이 연 1.5% 이자율로 주택과 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설치비 용자지원에 나섰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산업통장지원부의 지침에 따라 서민 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용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예정지역 주민들이 초기 설치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금리로 설치비를 지원해 도시가스 사용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자시설분

담금, 인입 배관설치비 등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설치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초기 설치비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는 주택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이자율은 연 1.5%으로 매우 낮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할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설치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등을 준비해 대출 추천 신청서를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너지산업팀)에 제출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에너지산업팀(061-430-3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 완도군, 노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기존 하수 처리 용량 50% ↑

완도군은 노화권역의 환경 보호와 하수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총 사업비 263억원을 투입해 노화읍 이포리에 하수 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며 1월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하수 처리 용량(480㎥/일)이 50%(720㎥/일)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신 하수 처리 기술을 도입해 하수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향후 20년 이상 하수 처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 처리 구역 확대로 삼마·미라·충도 마을의 각 가구에 설치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 하수도로 연결하여 생활오수를 처리함에 따라 악취 개선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노후된 하수 관로(9km)를 정비해 우선 시 불명수 유입을 차단,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방류수 악취와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사업을 통해 노화읍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공공 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무엇보다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 영암군, 한시적 일자리 모집 15일까지 취업 취약계층 대상

영암군이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영암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서별 행정 사무보조, 환경정비 등 38개 사업으로 나눠 총 80명을 선발하는 이번 모집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8~70세 영암군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임금 이외에도 간식비, 주휴·월차수당 등도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세한 내용을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공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지난 3일 강진군에서 동계 초등 축구 스토브리그가 개막됨에 따라 초등 축구 선수단들이 잔디구장에서 훈련을 펼치고 있다. 강진군은 스포츠 종목별 경기장 사용료 면제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스포츠 전지훈련 본격 운영

강진군이 지난 3일 '2025년 동계 초등 축구 스토브리그' 개막과 함께 본격적인 동계 전지훈련 시즌에 돌입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축구 전용구장 2개, 천연잔디 구장 3개, 제1다용도 실내체육관, 제2다용도 실내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수영장 등 훈련과 경기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강진군은 종목별 경기장 사용료 면제, 웨이트트레이닝센터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해 강진군을 찾는 선수단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동계 전지훈련에 강진군을 찾은 선수단은 6개종목 약 3000여명이었으나 올해는 축구(127팀), 테니스(61팀), 배드민턴(36팀), 볼링(15팀), 사이클(15팀), 럭비(4팀), 배구(10팀) 등 약 70% 증가된 총 7개 종목 51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강진군의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략과 전지훈련 최적지의 경기장 인프라 확충의 결과이다.

덕분에 전지훈련 기간 동안 강진군 지역 상권은 큰 활기를 띠고 있다.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음식적, 카페, 숙박업소는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와 관광지 방문도 늘어나고 있

다.

강진군은 선수단과 함께 동행한 보호자 및 학부모들에게 강진 반값 여행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여 훈련 외 시간에도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강진군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군민 가입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강진군이 스포츠와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 매년 강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수단과 관광객 모두에게 강진에 머무르는 동안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경로당·저소득 어르신 지원 해남군, 부식비·난방비 지급

해남군이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부식비와 난방비를 지원한다.

부식비는 경로당 597개소에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지원하며 긴급난방비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4163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군은 한파가 시작되는 이번 달 중 신속하게 지원을 완료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방침이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경로당 대표(노인회장)가 신청해 부식비 통장으로 지급되며, 긴급난방비 지원은 본인계좌 지급 원칙으로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연말연시 한파와 함께 경기침체도 계속되고 있어 저소득 어르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영암물 최대 30% 할인 설맞이 기획전

영암군은 오는 23일까지 '영암물 2025년 설맞이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가 설 명절 제수·선물 등을 경제적 가격에 구입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암군이 가격 세일 기회를 제공하고 나선 것.

행사 기간에 영암물에서는 한우 선물세트를 포함해 영암군 농·축산물, 가공품 등 223종의 다양한 특산품을 내놓고 20% 할인 쿠폰을 1인당 2장씩 나눠주고 있다.

여기에 일부 특가 상품과 명절 선물 세트는 10% 추가 할인까지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암물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3000원의 회원가입 적립금을 주고 댓글 '2025년 영암물에서 세뱃돈 쏜다',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쿠폰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빠른 참여가 필수다. 영암물에서 전국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로 설 명절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진일보' (Jinilbo). Includes @jinilbo, Kakao Talk: 진일보, and E-Mail: jebo@jinilbo.com.

## 마당개·길고양이 중성화 비용 지원 해남군, 31일까지 신청·접수

해남군이 유기동물 발생 예방 등 동물복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우선 실외사육견 214마리와 길고양이 190마리 규모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 중성화 수술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사육장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후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군내 길고양이 돌보미(갯마을)와 협약해 전체 사업량 중 70여마리에 대해 집중 포획반을 시범 운영한다.

포획반 운영으로 보다 안전하게 길고양이 포획과 방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봄철 길고양이발정기가 시작되기 전 중성화(TNR)를 실시해 개체수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동물등록비 지원, 입양비 지원 등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해남군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시 발생하는 비용 4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기동물의 입양시 소요된 병원비, 미용비 등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입양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동물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해남군을 만들겠다"며 "동물유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동물등록과 중성화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